

고흥군·신안군, 지방소멸대응기금 160억원씩 받는다

행안부, 지자체에 1조원 배분 ... 전남도 1632억원 '최다'
고흥 스마트팜 단지·신안 '1도 1뮤지엄' 프로젝트 추진
기금 3조원 규모 늘리고 지자체 기금 사용 자율권 높여야

2022년부터 인구감소지역과 관심 지역에 지원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현재 1조원에서 3조원 규모로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사용 자율권도 대폭 향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으로 향하는 젊은층을 붙잡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과 대규모 사업이 필요하지만, 광역 15개 및 기초 107개 지방자치단체에게 매년 각각 주어지는 예산은 최대 16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이 기금으로는 인건비, 경상비 등 소모성 경비, 결혼지원금·출산장려금·전입장학금 등 현금성 지원을 할 수 없으며, 지역 내 거점 생활 인프라 조성 등 직접 관련이 없는 정책개발 연구용역비, 공공청사 확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사실상 손발을 묶어놓고 강력한 상대와 맞서야 하는 상황이라는 불만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남도 4년 연속 전국 최다=22개 시·군 가운데 고흥·곡성·구례·담양·보성·신안·영광·영암·완도·장성·장흥·진도·함평·해남·화순 등 16개 군이 인구감소지역이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 투자계획서를 평가한 결과 8개 우수 시·군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고흥·신안이 선정돼 최대 금액인 160억원을 각각 배분받았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우수 등급이 2개 소인 시·도는 전남도가 유일하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총 1632억원(광역 304억·기초 1328억)을 배분받아 4년 연속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4년 동안 총 6312억원(광역 1490억·기초 4822억)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는 이 기금을 활용해 전남형 만원주택(1000호), 공공산후조리원(4개소) 등 저출생 위기 극복 및 청년 정주 여건 마련에 집중 투자했고, 앞으로도 이 분야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인구감소지역(89개소)과 관심지역(18개소)에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하는 재원이다. 광역기금은 인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정책 배분하고, 기초기금은 투자 계획 평가 결과, 인구감소지역 등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행안부는 기초기금 평가체계 올해 4개 등급(S 144억·A 112억·B 80억·C 64억)에서 2개 등급(우수 160억·양호 72억)으로 간소화하는 대신 등

급 간 격차를 최대 80억원에서 88억원으로 확대했다.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상위 10% 시·군에 최대 160억원을 지원키로 함에 따라 시·군 간 경쟁이 치열했다.

전남도는 16개 군이 기초기금 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도록 전남연구원과 연계해 투자계획서 작성부터 PT발표 자료 등 컨설팅을 적극 지원했다.

◇고흥은 스마트 팜, 신안은 팜금 커뮤니티 = 고흥군은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거점으로 각종 국비 보조사업과 연계한 스마트팜단지(시설원예·축산 및 수산)를 구축해 청년 농어업인을 육성하고 창업형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스마트원예단지, 스마트축산(CT(정보통신기술) 단지, 스마트수산양식단지 등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신안군은 '1도(島) 1뮤지엄(museum)' 프로젝트 일환으로 팜금도에 책(Book)을 활용한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해 정주민의 지적 수준 향상과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거점 커뮤니티 센터, 세프 빌리지(전일염 테마), 장작스튜디오, 북스테이하우스 등 체류 인구 지원 시설 및 주민 커뮤니티 지원 시설을 조성한다.

행정안전부도 컨설팅을 통해 지자체 사업 발굴을 지속 지원하고, '인구감소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12월 예정)'를 개최하는 등 좋은 사업이 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문제는 인구 감소 추세를 막기에는 예산 규모가 적어 기반시설을 마련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돼 그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 기금 사용 용도를 지나치게 제한해 지자체의 창의적인 정책·사업 발굴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매년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를 3조원으로 늘리고, 인구 증가 대책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출생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인민국장은 "올해 2050 인구 대전환 전남 프로젝트 시행 등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확보해 고부작"이라며 "기금을 최대한 활용해 혁신적 전남형 시책을 발굴하고, 인구감소 시군 등과 긴밀히 협력해 전남 특성을 반영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도 고양 컨텍스에서 열린 '2024 전국세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김광림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의 개회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임기 반환점 성과 보고하고 궁금한 사안 소상히 설명”

윤 대통령 내일 대국민 담화·회견
지지를 10%대 추락에 예정 앞당겨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대국민 담화 발표에 이어 기자회견에 나서기로 결정하면서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 방향과 정치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 소상하게 설명하는 장을 만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당의 요청에도 국회 예산안 시장연설에 불참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했다.

아울러 한 대표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실 및 내각 개편 등 고강도 국정 쇄신을 요구했으나 대통령실은 “고민하고 있으나 아직 입장이 없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4대 개혁 등 집권 후반기 국정 과제 점검을 비롯해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미국 대선 등 외교·안보 현안 대응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편으로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여권 인사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며 국정 쇄신 방안

을 고민해왔고, 이날 오후 참모진과 회의를 거쳐 대국민 입장 표명 시기를 앞당기기로 결심했다.

참모진은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입장 표명을 준비해 왔는데 이왕이면 다자외교 순방 전 밝히는 게 좋겠다”고 건의했고, 윤 대통령을 이를 수용해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갖기로 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민들에게 지난 성과를 보고드리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드릴 것”이라며 “일문일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금주 대국민 소통에 나서기로 한 배경에는 최근 급박하게 전개된 정국 상황이 자리잡고 있다.

국정 지지율은 10%대로 최저치를 기록했고, 야당이 명태군 씨와의 통화 녹음을 공개하는 등 각종 약제가 이어지는 상황을 방지하면 하반기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관심은 윤 대통령이 밝힌 국정 쇄신 해법이다. 여야 정치권의 각종 요구와 압박에 어느 수위까지

응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일단 회견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군 씨와 통화 내용을 토대로 야당이 제기한 본인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반박하며 명씨와 관련된 각종 논란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특검법,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는 물론이고, 대통령실 인적 개편과 개각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의 대외 활동과 관련해선 제2부속실을 설치하고, 영부인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제외한 대외 활동은 자제하겠다고 재확인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밤늦게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소식을 공개했고, 곧바로 담화문 작성과 회견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의 7일 기자회견은 지난 5월과 8월 진행했던 회견과 같은 형식이다. 윤 대통령이 먼저 담화를 발표하고,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대통령실은 탄우출 대화 등도 한때 검토했으나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 시기를 예정보다 앞당긴 만큼 이전과 같은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규칙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